한국 침법에 대한 인식도 및 연구방향에 관한 설문 조사

한창현* · 박지은* · 안상우* · 최선미[1)]*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2)]

Abstract

A Survey about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Korean acupuncture method and research direction

Han chang hyun · Shin sun wha* · Ahn sang woo** · Choi sun mi**

* Department of Medical Research,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Department of Academic Research,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ejectives : This survey was accomplished to find out how Korean medical doctors think that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Korean acupuncture method and research direction

Methods : The survey questions were developed by the consensus from the professors who major i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 questionnaire was given the 2731 Korean medical doctors at the mending education site; In addition, it was given to 793 doctors working at the 105 Korean medical hospitals listed on the National Korean Medical Hospital Associations Address book by postal mail; and also it was given to the 142 public health care Korean medical doctors who attended the conference for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Korean medical doctors. Total of 1277 questionnaires were retrieved out of the 3666

subjects.

[1)] 교신저자 : 최선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Tel. 042-868-9485

[2)] This is study was supported by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Results : 1. Eleven hundred eighth seven out of 1277 Korean medical doctors think motion and bone and joint disease which has an effect in acupuncture treatment(92.9%)

2. Nine hundred fourteen out of 1277 Korean medical doctors used "Body acupuncture method"(71.5%) and 902 out of 1277 Korean medical doctors think of the korean acupuncture method which is "Sa Am acupuncture method"(70.6%)

3. Eight hundred forty out of 1277 Korean medical doctors want verification which leads a clinical research to know that acupuncturist hav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65.7%).

Conclusion : Korean medical doctors think motion and bone and joint disease which has an effect in acupuncture treatment

Korean medical doctors most used "Body acupuncture method" but think of the korean acupuncture method which is "Sa Am acupuncture method". Korean medical doctors want verification which leads a clinical research to know that acupuncturist hav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Key words : Survey, Acupuncture, Korean medical doctors (K.M.D)

Ⅰ. 序論

오랜 역사 속에서 한의학은 여러 가지 서로 상충하는 이론적 틀을 가지면서 전개·발전되었기 때문에 한의학의 범위를 규정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닐지 모른다[3].

특히 침구학은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창조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면서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었고[4],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임상실천을 통해 귀중한 경험이 축적되어 내용도 풍부하고 충실하게 발전되어 왔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침구와 조작방법이 크게 개량되고 발전되었고 창조 개발된 수많은 새로운 요법이 점차로 광범하고 풍부해지면서 의료면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5].

침구학에 대한 연구는 현재 임상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최근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1990년대부터 환자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치료효과를 연구한 논문들을 이용하여 근거중심의학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으며[6], STRICTA 권고안을 통하여 침구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

3) 허정. 21세기 한의학의 장래. 제 1회 한의학연구소 학술 세미나 초록집. 한의학연구소 1995 : 18.

4) 정민성. 우리 의약의 역사. 학민사. 1992 : 166-168.

5) 강성길, 최용태. 미용침요법에 관한 연구(치료대책을 중심으로). 동서의학. 1980 : 5(1) : 54.

6) Evidence-Based Medicine Working Group. Evidence-based medicine. A new approach to teaching the practice of medicine. JAMA. 1992 : 268 ; 2420-5.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7].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적으로 한의학과 대체요법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같은 행위라도 제도권의학과 대체요법을 구분해야 하는데, 제도권 외의 민간에서 행해지는 침, 구, 부항, 한약투여는 대체요법의 범주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8]. 이러한 대체요법에 대한 학문적 검토 및 연구를 통해, 의료 행위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인의 역할 및 제도권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전통 침구치료법의 발굴·수집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자문 및 연구 활동 등을 통한 정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6). 그리고 학문적 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되는 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의료인에 의해 건강하게 보급할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이용경로 및 정보원 파악을 위한 연구 또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6).

이에 필자는 임상의료 현장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침구 치료법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간요법이라도 유효성이 입증되는 특정요법을 정리하여 학술적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침 치료 시 효과가 있는 질환의 현황 파악 및 가장 다용하는 침법과 계승되어야 할 침법,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침법의 연구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Ⅱ.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시기

조사대상은 보수 교육장 방문 한의사 2731명, 공중보건한의사 시도 대표자회의 참석 공중보건한의사 142명, 전국 한방병원 한의사 793명으로 총 366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보수교육장 한의사 650명, 우편조사 497명, 공보의 142명으로 총 1277명이 응답하여 회수율 35%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및 장소는 2005년 5월18일부터 시작된 시도별 한의사 보수교육장 및 공중보건한의사 시도 대표자회의장과 전국 한방병원이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 내용은 침구에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고 침구학 전공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문지로 작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침 치료 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질환 관련

---

7) Mac Pherson H, White A, Cummings M, Jobst K, Rose K, Niemtzow R. Standards for reporting interventions in controlled trials of acupuncture : the stricta recommendations. Complement Ther Med. 2001 : 9 ; 246-9.

8) 임병묵. 국내 한방의료 및 대체요법 관련 산업의 현황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한국한의학연구원. 보건복지부 2001 : 84, 125, 19.

1문항, 침 치료법 관련 3문항, 침법의 연구 및 교육 관련 4문항,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및 일반적인 특성 등의 변수 4문항으로 총 12문항이며, 그 중 중복응답은 5개 문항, 자유응답은 1개 문항이었다.

조사방법은 임상에서 직접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를 설문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으러 온 한의사와 현재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 중에 있는 공중보건한의사,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여 보수교육장과 공중보건한의사 시·도대표자 회의장에 참여하여 직접 설문 조사를 했고, 한방병원의 경우는 직접 방문조사가 어렵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한방병원협회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한방병원에 전화통화로 협조를 구한 105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3. 자료 분석

조사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잘못된 기재자료를 제외하였고, SPSS 프로그램(12.0 K, Data Solution)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용한 분석기법은 frequency analysis(빈도분석)이며 자유응답 문항은 유사한 응답들을 묶어 frequency analysis(빈도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인 한의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가 927명(72.5%), 여자가 117명(13.8%)으로 남자의 비율이 더 컸다.

임상경험은 5년 미만이 447명(35.0%)으로 가장 높았고 10~19년이 345명(27.0%), 5~9년이 279명(21.8%), 20~29년이 73명(5.7%), 30년 이상이 20명(1.6%)으로 가장 적게 나왔다.

연령은 30대가 503명(3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가 319명(25.0%), 20대가 209명(16.4%), 50대가 53명(4.1%), 60대 이상이 22명(178%)으로 가장 적게 나왔다.

근무형태는 개원이 603명(4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의원 근무가 201명(15.7%), 병원 근무가 150명(11.7%), 공보의가 111명(8.7%), 학교 및 연구원 근무가 6명(0.5%), 기타가 5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인원수	%
성별	남	927	72.6
	여	177	13.9
	무응답	173	13.5
임상경험	5년미만	447	35.0
	5~9년 미만	345	27.0
	10~19년 미만	279	21.8
	20~29년 미만	73	5.7
	30년 이상	20	1.6
	무응답	113	8.9
연령	20대	503	39.4
	30대	319	25.0
	40대	209	16.4
	50대	59	4.1
	60대 이상	22	1.7
	무응답	171	13.4
근무형태	개원	602	47.1
	한의원 근무	201	15.7
	병원 근무	150	11.7
	공보의	11	8.7
	학교 및 연구원 근무	6	0.5
	기타	5	0.4
	무응답	202	15.9

2. 침 치료 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질환

침 치료 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질환으로는 운동, 골관절계 질환이 1187명(9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화기계 질환이 964명(75.4%)으로 반수 이상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고, 신경·정신과질환 529명(41.4%), 호흡기계 질환 333명(26.1%), 이비인후과질환 332명(26.1%), 퇴행성 신경질환 331명(26.0%), 순환기계 질환 307명(24.0%), 부인과질환 228명(22.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질환은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피부과(아토피, 알레르기), 현운. 두통. 감모, 비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 및 골·관절계와 소화기계를 중복 응답한 사람은 925명(72.4%)으로 나타났다.

<표 2. 침 치료 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질환>

침 치료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질환	인원수	%
운동, 골 관절계 질환	1187	92.9
소화기계 질환	946	75.4
신경, 정신과 질환	529	41.4
호흡기계 질환	333	26.1
이비인후과 질환	332	26.0
퇴행성 신경 질환	331	25.9
순환기계 질환	307	24.0
부인과 질환	288	22.5
신, 비뇨기과 질환	233	18.2
안과 질환	220	17.2
내분미, 대사계 질환	184	14.4
면역, 감염계 질환	157	12.3
혈액 조혈계 질환	98	7.7

3. 자주 사용하는 침 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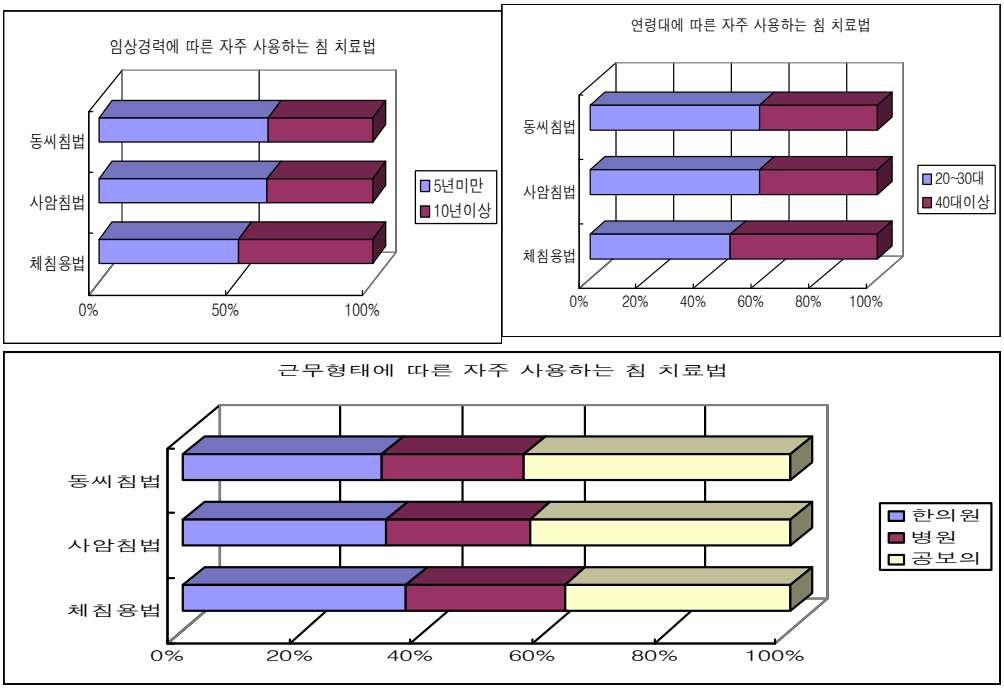
자주 사용하는 침 치료법으로는 체침요법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14명(71.5%), 사암침법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47명(50.6)%, 동씨침법 599명(46.9%), 오행침법 245명(19.5%), 이침요법 211명(17.3%), 약침요법 175명(13.7%)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 팔체질침, 체질침, MPS, 삼극침법, 트리거포인트(TrP)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침 치료법 중 가장 다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체침요법, 사암침법, 동씨침법을 임상경력과 한의사의 연령, 근무형태에 따라 비교하여 보았는데 체침요법의 경우 다른 침법에 비해서 임상경험 5년 미만보다 10년 이상, 20~30대보다는 40대 이상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씨침법과 사암침법은 그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동씨침법 및 사암침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주 사용하는 침 치료법>

자주 사용하는 침 치료법(중복응답)	인원수	%
체침요법	914	71.5
사암침법	647	50.6
동씨침법	599	46.9
오행침법	245	19.2
이침요법	221	17.3
약침요법	175	13.7
봉독요법	145	11.3
평침화침법	126	9.9

상대성침법	68	5.3
수지침법	39	3.1

<그림 1. 자주 사용하는 침 치료법>



4. 전통 한국 침법 중 계승 보존해야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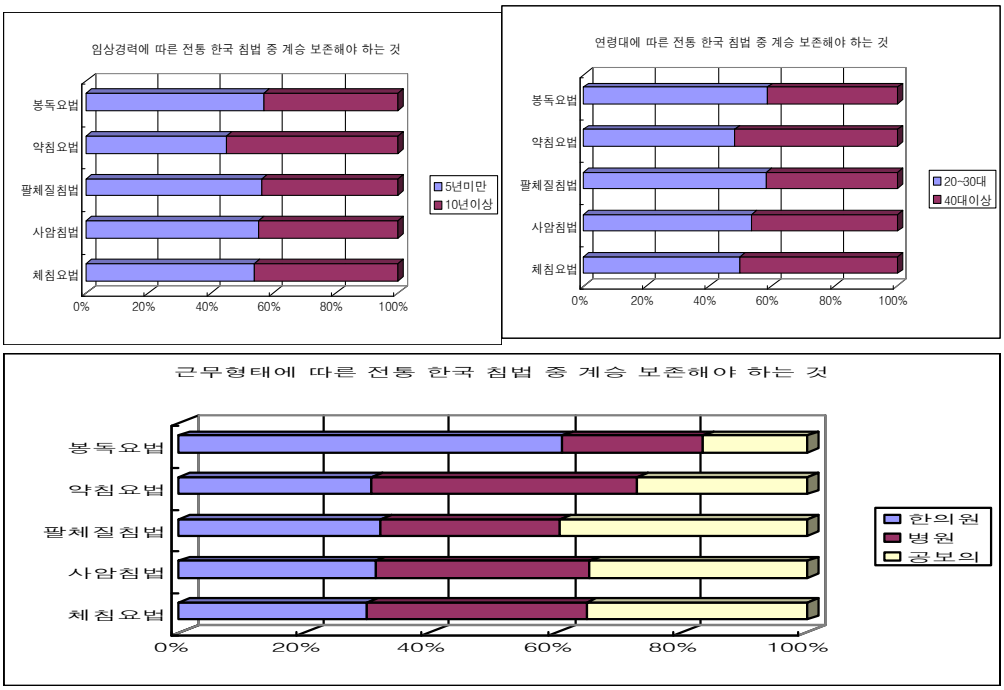
전통 한국 침법 중 계승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사암침법이 902명(70.6%), 체침요법이 711명(55.6%)으로 높게 나타났고, 오행침법 464명(36.3%), 팔체질침 353명(27.6%), 약침요법 307명(24.0%), 봉독요법 299명(23.4%)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경우는 응답률이 낮았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격팔상생역침, 삼극침법, 자오유주, 차서 침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체침요법과 사암침법' 이라고 중복 응답한 사람이 554명(43.4%)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통 한국 침법 중 계승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약침요법의 경우는 임상경험 5년 미만보다 10년 이상, 20~30대보다는 40대 이상이 더 많이 계승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형태에 따른 비교에서 한의원은 봉독요법, 한방병원은 약침요법, 보건소에서는 팔체질요법이 다른 근무형태보다 더 많이 계승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통 한국 침법 중 계승 보존해야 하는 것>

전통 한국 침법 중 계승 보존해야 하는 것	인원수	%

사암침법	902	70.6
체침요법	711	55.6
오행침법	464	36.3
팔체질침법	353	27.6
약침요법	307	24.0
봉독요법	299	23.4
평침 화침법	212	16.6
이침요법	167	13.1
태극침법	125	9.8
상대성 침법	120	9.4
수지 침법	117	9.2

<그림 2. 전통 한국 침법 중 계승 보존해야 하는 것>



5.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침법을 알거나 들은 바의 유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침법에 대하여 들은 바의 유무에 관한 물음에서 없다가 930명(72.8%), 있다가 237명(18.5%), 결측 120명(8.7%)으로 나타났다.

들은 바가 있는 응답자 중 그 침구법의 명칭으로 기술한 것은 IYOHO침법, AK식 침구치료, 한침, 관절약침, 사혈침, 태양침법, 쾌속침법, 체질침, 청대미기명침술, 주행침법,

정씨침법, 석학민, 하보인, 입술 자락치료법, 일침요법, 월오사암, 오기도인법, 심침, 심천사혈요법, 수지침법, 사암침, 동씨침구법, 극침요법, 곡운침법, 격팔상생역침, 8체질침, 신천침법, 삼극침법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법 공개 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218명) 중 학회로 발전이 128명(54.0%), 임상연구 실시가 126명(53.2%), 후계자 양성이 26명(11.0%), 침구명인등록 24명(10.1%). 기타 4명 (1.7%)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회로 발전과 임상연구 실시'라고 중복응답한 사람이 55명(25.2%)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표 5.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침법을 알거나 들은 바의 유무, 발전방향>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침법을 알거나 들은 바의 유무	인원수	%
아니다	930	72.8
그렇다	237	18.5
결측	110	8.7
침법 공개 후 발전 방향 (중복응답)		
학회로 발전	128	54
임상연구 실시	126	53.2
후계자 양성	36	15.1
침구명인 등록	24	10.1
기타	4	1.7

6. 침구사가 보유한 침구치료기술에 대한 연구 진행 방향

침구사가 보유한 침구치료기술에 대한 연구 진행 방향으로 임상연구를 통한 검증이 840명(6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침법의 역사적·문헌적 검증이 419명(32.8%), 탐방조사를 통한 영상 자료 구축이 339명(26.1%), 전수 프로그램 개발이 334명(26.1%), 제도적 보장이 126명(9.9%)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한의학회로 흡수, 한의사 영역으로 포함 등이 있었다.

<표 6. 침구사가 보유한 침구치료기술에 대한 진행 방향>

침구사가 보유한 침구치료기술의 연구 진행 방향	인원수	%
임상연구를 통한 검증	840	65.7
침법의 역사적, 문헌적 검증	419	32.8
탐방조사를 통한 영상 자료 구축	339	26.5
전수 프로그램 개발	334	26.1
제도적 보장	126	9.9
전수 교육기관 설립	118	9.2

연구할 필요가 없음	62	4.9

7. 특강이나 보수교육을 받고 싶은 침법

특강이나 보수교육을 받고 싶은 침법으로 사암침법이 294명(2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씨침법이 263명(20.6%), 평침·화침법이 184명(14.4%), 봉독요법이 164명(12.8%), 약침요법이 149명(11.7%)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팔체질침 ,체질침, 주행침법, 격팔상생역침, 일침 등이 있었다.

<표 7. 특강이나 보수교육을 받고 싶은 침구법>

특강이나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침구법	인원수	%
사암침법	294	23.0
동씨침법	263	20.6
평침 화침법	184	14.4
오행침법	168	13.1
봉독요법	164	12.8
약침요법	149	11.7
체침요법	131	10.3
태극침법	71	5.6
상대성 침법	66	5.2
이침요법	29	2.3
수지침법	23	1.8

Ⅳ. 고찰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설문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한의사 보수 교육장에 참여하여 직접 설문을 실시하였고, 우편을 통한 설문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화협조를 구하였다. 그 결과 전체 3666명을 대상으로 1277명이 응답하여 회수율 35%로 분석할 충분한 경우가 수집이 되어 통계학적으로 한의사 전체 집단의 대표성을 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시에는 다양한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오차들은 예를 들어 신뢰도나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조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9] 이번 우편을 통한 설문 조사에서 설문지를 응답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응답할 수 있게 작성을 해야 했으나 그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여 응답을 잘못한 경우가 있었을 것으

9) 김태일, 서주현. 행정학 분야에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 분석. 한국행정학보. 1998 : 32 : 199-215.

로 생각되며,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본 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설문 문항 중 중복된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는 침 치료의 질환별 유의성에 관한 설문에서 운동 및 골관절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에서 침 치료가 우수한 효과가 있다(표 2. 참고)고 나타났는데 이는 운동 및 골관절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에 침 치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율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질환 외에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침으로 치료하는 질환을 동통이나 소화기 질환에만 국한하여 연구하기 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치료 가능한 증상과 질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침법으로는 체침법을 기본으로 사암침법과 동씨침법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나타났지만(표 3. 참고) 전통 한국 침법으로써 계승 보전해야 하는 것은 사암침법으로 설문 결과가 나타났다(표 4. 참고). 이는 임상에서 여러 가지 침법을 활용하여 치료를 하고 있지만 체침을 기본적으로 시술하고 있으며 사암침과 동씨침을 체침과 더불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침법으로는 사암침법을 가장 대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암침법에 대한 역사적, 문헌적 고증 및 오수혈의 원리로써 활용하는 여러 가지 침구 치료 방법에 관한 임상 연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침법으로써 발전시키고 교육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자주 사용하는 침 치료법 중 체침요법은 임상경험 5년 미만보다 10년 이상이, 한의사의 연령은 20~30대보다는 40대 이상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씨침법과 사암침법은 그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고). 또한 근무형태에 따른 비교에 있어서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다른 근무형태에 비해 동씨침법 및 사암침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한의사들이 사암침과 동씨침에 관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도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전통 한국 침법 중 계승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침법을 한의사의 임상경험과 연령 그리고 근무형태로 비교 분석해본 결과 다른 침법에 비해 약침요법의 경우에서 임상경험 5년 미만보다 10년 이상이, 20~30대보다는 40대 이상이 더 많이 계승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림 2. 참고), 이러한 결과는 연구진으로써 의외의 결과로써, 분석한다면 40대 이상은 약침이 한의학의 독창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젊은 한의사들은 약침요법을 신침요법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약침요법의 정통성에 관한 부분은 서양의 주사요법, 중의학의 수침요법 등과의 기법적 시원 및 역사적 근거와 임상 활용실태에 관한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근무형태에 따른 비교에서 한의원은 봉독요법, 한방병원은 약침요법, 보건소는 팔체질요법이 다른 근무형태보다 더 많이 한국 침법으로써 계승 보존되어져야 한다고 나타났는데(그림 2. 참고), 이는 근무형태에 따른 임상 활용도에 비례해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설문조사 결과 임상에서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침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표 5. 참고), 이러한 침법들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학회로 발전시키거나 임상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침구사가 보유한 침구치료기술 또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임상연구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표 6. 참고). 이는 침법 연구의 대상을 민간요법이라도 학문적, 임상적 연구를 통하여 건강하게 보급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Ⅴ. 結論

오늘날의 한국 침구 치료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규명을 통하여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침 치료 방법 및 효과가 있는 질환 파악 그리고 가장 다용하는 침법과 계승되어야 할 침법, 민간에서 전수되고 있는 침법의 연구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1. 침 치료 시 효과가 있는 질환에 대한 인식 현황

침 치료 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질환으로는 운동 및 골관절계 질환(92.9%)이 가장 높았으며, 소화기계 질환(75.4%)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용하는 침 치료법 및 전통 침법에 대한 인식 현황

침 치료 시 체침(71.5%)을 기본으로 사암침(50.6%)과 동씨침(46.9%)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전통 한국 침법으로써 계승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암침법(70.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암침법과 동씨침법에 대한 교육이 보수교육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침법의 연구 방향

임상에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침법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침법은 학회로 발전(54.0%)시키거나 임상연구(53.2%)를 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에서 보유한 침구치료기술을 연구해 나가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 임상연구(65.7%)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參考文獻〕

1. 허정. 21세기 한의학의 장래. 제 1회 한의학연구소 학술 세미나 초록집. 한의학연구소 1995 : 18.
2. 정민성. 우리 의약의 역사. 학민사. 1992 : 166-168.
3. 강성길, 최용태. 미용침요법에 관한 연구(치료대책을 중심으로). 동서의학. 1980 : 5(1) : 54.
4. Evidence-Based Medicine Working Group. Evidence-based medicine. A new approach to teaching the practice of medicine. JAMA. 1992 : 268 ; 2420-5.
5. Mac Pherson H, White A, Cummings M, Jobst K, Rose K, Niemtzow R. Standards for reporting interventions in controlled trials of acupuncture : the stricta recommendations. Complement Ther Med. 2001 : 9 ; 246-9.
6. 임병묵. 국내 한방의료 및 대체요법 관련 산업의 현황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한국한의학연구원. 보건복지부 2001 : 84, 125, 19.
7. 김태일, 서주현. 행정학 분야에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 분석. 한국행정학보. 1998 : 32 : 199-215.